

애니메이션 1화(대별이소별이)

번호	배역	내용
01-01	엄마	하영아~ 이사 첫날이니까 옆집에 떡 좀 드리고 오렴~
01-02	하영	네~
02-01	하영	다녀오겠습니다~!
03-01	하영	(콧노래 흥얼거리기) 흥흥~ 흥흥흥~
05-01	하영	우와.. 집 되게 넓다..
05-02	하영	(무언가 발견한 듯) 응?
06-01	하영	계세요? 옆집에서 왔는데요.~
06-02	하영	아무도 없나?
06-03	하영	(궁금한 듯) 어?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..
06-04	하영	아무도 안계세요~?
06-05	하르방	(음산하고 무겁게) 이 책, 느 口 · 습냥 폐지 말라!
08-01	하영	(무언가 발견한 듯) 어? 저게 뭐지?
10-01	하영	(여기저기 살펴보며 궁금한 듯) 무슨 책이지?
11-01	하영	(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빛무리에 당황하며) 까아! 뭐..뭐야?! 왜 이래!
15-01	하영	(점점 강해지는 빛무리에 쌓이며) 으아아아~!
18-01	하영	으으..여긴 어디야?
18-02	하영	(무언가 발견한듯) 응?
18-03	누리	(땅에 파묻혀 입이 막혀있음) 읊!! 읊읍읍! 읊!
19-01	하영	(궁금한듯) 무슨 소리지?
20-01	하영	(파묻혀 있는 누리를 보고 놀라며) 엄마야!
20-02	누리	(땅에 파묻혀 입이 막혀있음) 읊읍!! 읊~!
21-01	하영	(누리를 꺼내려 힘들어하며) 이익~! 으으으으~!
21-02	누리	(힘들어하며) 읊~! 으읍~!!
21-03	하영	(누리가 뿜히며 뒤로 넘어지며) 까아앗!

22-01	누리	(하영이 배로 떨어지는) 으아앗! (잠시 적막) 앵?
23-01	누리	우아압!!! 하영아, 도웨칭 고맙다.
23-02	하영	(당황한듯) 응? 날 알아? 넌 누구야?
24-01	누리	난 돌하르방 요정 누리! 느 지들리단 오꼴 땅에 빠졌저.
24-02	하영	나를? 그런데.. 여기는 어디야?
25-01	누리	제주도 옛날 이야기가 하영 잇인 설화나라여.
26-01	하영	(가우똥하며) 설화...나라? 그럼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돼?
26-02	누리	설화나라의 뜯린 이야기를 줄바로 고쳐사 집이 가질 거.
26-03	하영	(잘 못알아들으며) 줄바로..? 뜯린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..
27-01	누리	하하하! 제주어로 ㄱ·ㄹ아부난 뉘엔 햄신디 ㅁ·ㄹ람구나. 체얌엔 다 경흔다. 경해도 ㅈ·주 들당보민 흥·끔씩 알아들어질 거여!
28-01	누리	(힘차게) 일단 이, 오넨은 어떤 이야기산디 ㄱ·ㅌ이 알아보게.
28-02	하영	앗, 하늘나라 임금님이다.
28-03	누리	이 어른은 천지왕이여. 이 시상을 맹근 신이라. 다음은~
28-04	하영	햇님이랑 달님한테 화살을 쏘려는 사람 두 명.
28-05	누리	맞아! 대별이 소별이 이야기로구나! 게민 ㅁ·ㄴ처 천지왕 만나래 하늘 가보게!!
29-01	하영	(가우똥하며) 천지왕은 어디에 사는데?
30-01	하영	(놀라며) 하늘?! 말도 안돼. 저길 어떻게 가?
31-01	누리	(힘차게) 하하! 걱정 흥지 말라! 이야아압~!
34-01	하영	(좋아하며) 우와아~! 예쁘다~!
34-02	누리	(힘차게) 흥루에 흥 번은 어디라도 갈 수 잇저! 게민~ 출발흥마!!
36-01	천지왕	(심각하게 고민하며 끙끙거린다) 아이고... 잘도 ㅈ·들아점저...아이고...
36-02	천지왕	(깜짝놀라며) 아이고명야!!
37-01	천지왕	무사 영 웨엽시니!
38-01	누리	(민망한듯) 아..안녕흥·시우파? 천지왕님! 헤헤..
38-02	하영	(머리를 어루만지며) 아야야야...

39-01	천지왕	(의외라는듯) 아니, 는? 돌하르방 요정 누리 아니가?
39-02	천지왕	느 ㅈ·꿏디 아인 누게고?
40-01	누리	설화나라 도웨주레 온 하영이마씨. (하영이를 보며) 흥·ㄴ저 인사드리라. 천지왕이라.
40-02	하영	인사? 아, 안녕하세요?
40-03	누리	(당황하며) 제주어로! 안녕흥·시우파?
40-04	하영	아! (어색하게) 안녕하시..파?
41-01	천지왕	아이구! 마춤 잘 뒀어. 느가 날 흥·꿈 도웨주라!
41-02	하영	네?
42-01	천지왕	설화나라 말이여, 큰 일 낮어.
43-01	천지왕	지금 설화나라에 해영 ㄷ·르이영 두 개씩 터부난, 낮인 온 시상이 바짝 데불곡, 밤인 ㅁ·ㄴ 팡팡 얼얼저.
43-02	천지왕	경흥·난 나 아덜들, 대별이영 소별이신디 해 흥나영 ㄷ·르 흥·날 털어치와똥 오랜 시겻주.
43-03	천지왕	경흥·ㄴ디 아덜들은 들은 체도 안흥·곡 영 빈둥빈둥 간세만 흥·염서.
44-01	천지왕	게난 말인디이, 나가 꼭 부탁홀게 잇저. 활이영 화살을 ㄱ·저당 대별이소별이안티 주곡, 사름덜이 못즌뎡 애즈·즈는 시상을 보여주라.
44-01	누리	알았습니다! 게민 하영이영 ㄱ·트이 대별이 소별이 신디 가쿠다!
45-01	천지왕	이레덜 보라, 그디 아무도 엇이나?
46-01	신하	누게 ㅈ·즈음테강?
46-02	천지왕	기여. 하영이영 누리신디 활이영 화살 앓다 주라.
47-01	신하	이레 오십서.
48-01	하영	(어색하게)이레..오십..서? 이쪽으로 오라는 말인가?
49-01	신하	하하하! 무시거옌 ㄱ·르암신디 몰르쿠광? 경해도 ㄱ·만이 생각흥·멍 들으민 흥·꿈씩 알아집니다.
52-01	대별이	소별아.. 우리 얼마나 쉬었이니?
53-01	소별이	(기지개키며) 으그그그..하아... 해가 지질 앓흥·난 잘 ㅁ·르르쿠다.
53-02	소별이	영 드러누웁 놀당, 해 흥나가 털어지길 지들리는 건 어뎡흥·우파?
54-01	대별이	소별아...(잠시 정적) 잘도 좋은 생각이여.
57-01	하영	대별아, 소별아!

57-02	누리	느네 이디서 뭇 햄나!!
58-01	대별이	(무슨 일이냐는 듯) 기냥 놀암신디?
58-02	소별이	(입을 다문 상태로) 음, 음
59-01	하영	(짜증 섞인 목소리로) 지금 세상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거든?
59-02	누리	저디 해영 ㄷ·르을 흥·나씩 털어트려사 흥·르거 아니?!
60-01	소별이	(늘어지게 하품)하아아아아~ (졸린 목소리로) 아, 맞다. 오꼴 잊어부럿저.
60-02	대별이	(졸린듯 눈비비며) 졸아운디 눈 좀 붙여낵 흥·게.
61-01	하영	(화를 삭히며 나지막하게) 언제 일어날건데?
62-01	소별이	음.. 저 해 털어지민?
62-02	누리	야이네 보라? 느네가 털어트려사 흥·르거!
62-03	하영	천지왕이 부탁하셨잖아!
63-01	소별/대별	아, 맞다. 경흥·지이?
63-02	대별이	아버지가 헛님 털어치우민 뭘 주켤도 안해신디,
63-03	소별이	(어깨를 으쓱하며) 구참여게 흥·곡.
63-04	누리	(화내며) 아이고 야야. 두령청흥·ㄴ 소리 말앙 이디왕 베려보라.
64-01	누리	(격양되서) 이것이 설화나라여. 해님이 두 개나 텅, 땅이 너미 ㄷ·사부난 먹을 게 아무것도 나질 않햄쩌!
64-02	하영	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굶고 있단 말야!
65-01	소별이	(놀라서 울먹이며)성! 어머님은 낭 거죽 먹엄수다!!
65-02	대별이	그건 무신 소리고!
66-01	하영	(격양되서 울먹이며 소리친다)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구해야 하잖아, 이 바보들아!
67-01	대별이	(울먹이며)느영나영 간세 흥당 보난...흑... 흥·끔만 인척 알앗이민...
67-02	소별이	(울먹이며) 경흥·주만 성님, 우리가 이걸 미룻 알앗젠 해도 방법이 엇수다..
68-01	하영	자. 이거 받아.
68-02	대별/소별	이건 뭇고?
69-01	누리	천지왕이 느네 안티 주켤 맹근 쉼활이영 쉼화살이여.
69-02	소별이	(감상에 젖으며) 아바님이 맹글엇다고?

70-01	대별이	(걸의에 찬듯)소별아, 우리가 영 흥 · 르 때가 아니여.
70-02	소별이	(걸의에 찬듯)맞수다, 성님. 흥 · 르 시라도 배 · 르리 떠납주!
71-01	대별이	소별아!
71-02	소별이	대별성님!
72-01	대별/소별	우리가 시상을 구흥 · 쿠다!
72-02	대별이	대별!
72-03	소별이	소별!
72-04	대별/소별	기 · 트이 <u>가게!</u>
73-01	대별이	(멀리서 말하듯 소리친다)하영아~ 고맙다~
73-02	소별이	(멀리서 말하듯 소리친다) 이 은헨 아름다운 시상으로 갇으크라!
74-01	하영	(무언가를 발견한 듯) 응?
74-02	누리	(무언가를 발견한듯) 어?
75-01	누리	(좋아하며) 이야기가 즐바로 발루와졌져!
75-02	하영	(좋아하며) 와아!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거야?
75-03	누리	(좋아하며) 맞다!
76-01	하영	(책에서 밝은빛이 나자 놀라며) 앗!
76-02	하영	(잠시 놀랐지만 이내 웃는다) 헤헛.
77-01	누리	(사라져가는 하영이를 보며 소리친다) 하영아! 자 · 미이서냐? 난 잘도 자 · 미져라. 따 · 시 보게이~!
78-01	하영	(사라져가며 누리를 보며 소리친다) 누리야 도와줘서 고마워~! 또 보자~! 안녕~!
79-01	하영	(누리의 선물을 보며 싱긋 웃는다) 헤헛.
80-01	하영	다녀왔습니다~!
80-02	엄마	(걱정한듯) 어머! 하영아, 어디 갔다 이제 오는거야~!
80-03	하영	(밝게) 제주어가 가득한 설화나라요
80-04	엄마	(어이없는) 뭐라고?
80-05	하영	(앞보다 더 즐겁고 강하게) 제주어가 가득한 설화나라요~!